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 주님의 계시 잠언

1. 내가 너를 부른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사랑’ 때문이다.
2. 사랑의 문 열쇠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3. 사랑도 같은 차원에서만 하면 지루하다. 차원을 높여라.
4. 현실의 자기 마음, 생각, 정신과 행실로 인하여 자기 미래가 그대로 만들어져 그 삶으로 가게 된다.
5. 사랑하는 자의 목적은 ‘사랑’이다.
6. 자기 몸이 주의 몸이 되게 하여라.
7.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요리해서 먹듯이, 자기 몸을 그냥 드리지 말고 만들어서 사랑하는 주님께 드려라.
8. 우리 몸은 살아 계신 주 하나님의 성전이다.
9. 조직이다. 조립이다. 그리고 같이 달리는 것이다.
10. 사랑하는 자끼리도 ‘대화’로 만남이다.
11. ‘기도’는 주와 대면이다. 주와 만남이다.
12. 젊었을 때 속히 하여라. 인생 매일 늙는다.
13. 오래 산다고만 해도 일을 많이 하고 영이 변화되어 이상적인 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14. 사람과는 ‘말’로 대화하고, 주님과는 ‘신령한 영체’로 영의 대화를 한다. 기도는 ‘말’로 하고, 주님과 통하는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통한다.
15. 밤에 안 보이는 것도 밝아지면 보이고 빛이 나면 보이듯이 기도하면 보인다. 먼저 느낌, 다음은 영감, 그다음은 깨달음, 그다음은 현상이 여러 가지로 보인다.
16.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상대와 대화를 못 한다. 주님과 기도로 대화할 때도 주님 이야기를 해야 전초가 되어서 주님과 통하게 된다.